

2022 THEME

더 깊이 뭇을 끓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체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체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체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체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체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체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체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체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체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 1부/영광스런 주를 보라(찬12/새33장)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 1부/은혜(작곡 박재형)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Caleb Ryu 류지민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7:13-20 All together 다같이
- 4부/마가복음 9:14-29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게임 체인저(31)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6) 사랑한다면 기도하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너 시험을 당해(찬395/새3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찬470/새413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2022년 10대 감사

10 Great Thanks of 2022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에 셀 수 없는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팬데믹이 끝나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이라 이전보다 더 큰 예배의 감격이 넘칩니다. 늘 그랬듯이, 매년 가장 기쁘게 목회했다고 실행위원회 송년 모임 때마다 고백했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훈들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항상 그랬듯이, 한해의 은혜를 저장하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는 중고등부에 코로나가 유행해서 식사 제공은 못 했지만, 처음으로 현장에서 모이게 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침 영상 500회를 맞이할 때 그로 인해 코로나를 뚫고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0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섰지만,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밟으며 해외를 향한 선교여행의 첫 기지개를 켰습니다. 여행사에서 말하길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방문한 팀이라 할 정도로 발 빠른 결정에 교통체증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성경의 땅을 돌아보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며, 수난의 길(Via Dolorosa)에서 특별 촬영한 영상이 고난 주간 특별집회에 의미 있게 사용되면서 모든 교인과 이스라엘 방문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넷째, 코로나 이후 첫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신호탄으로 호세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베델 성도들의 현금으로 지어진 현지 학교 건물을 봉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이민교회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온 세대가 함께 나누는 큐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베델 번역팀이 총력을 다하여 “큐티인 영어판”이 출간되어 미주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말씀이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1회 미주 목욕탕 세미나를 베델에서 개최함으로 영문 큐티 교재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섯째, 미래의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CA)가 개교 1주년을 맞이하고, 실행이사 및 후원이사회를 결성하며 더 힘 있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 설립 46주년을 감사하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조지아에서 베델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파송 및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초대하여 위로하였고, 향후 10년의 베델 선교비전 선언문을 채택하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덟째,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외에 처음으로 신학 강좌 및 임직을 즈음해서 두 번 더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하여 온 교회가 무릎 꿇는 영성을 한층 고양한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아홉째, 추수감사절 행사로 교회 마당에서 감사 토크 콘서트를 가진 것은 쌀쌀해지는 가을에 따뜻한 은혜와 감사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째, 교회 설립 후 46년간 함께한 영어 회중(Bethel Grace Church)을 같은 캠퍼스와 하나님의 교회학교를 전제로 BGC 시무장로를 안수하며, 완전히 독립시킨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There are countless things to be thankful for as we wrap up a year this season. Especially, in the midst of returning to in-person worship with the pandemic nearing an end, we are filled with great emotions as we worship. I said every year at the year-end executive committee meeting, that the year was the most joyful year of ministry. Without exception, I could confidently give the same confession this year. I am reminded of lyric from a hymn. “When upon life's billows. You are tempest tossed. When you are discouraged. Thinking all is lost. Count your many blessings.” I would like to count our blessings as we get ready to wrap up the year.

First, although we could not provide meals after Elijah Early Morning Prayer due to youth group's Covid spread during that time, we cannot forget God's grace as we met in-person worship for the first time since Corona virus pandemic. Second, it was a special time of thanks as we came upon 500th airing of Daily Morning QT video. It gave us much strength to get through the pandemic. If God allows, I would like to get to 1000th. Third, even though Covid apparently had stopped everything, we were able to reach out to foreign mission with a trip to Israel, the Bible land. According to our travel agency, we were the first team to visit since Covid. Because of our early preparation, we were able to travel more freely through the Bible land without traffic congestion. It was God's special grace. Special video taken on Via Dolorosa road was especially useful in our Passion Week Worships. It was an opportunity to share blessings of visiting Israel with the church. Fourth, the first short-term mission team since Covid was sent out as a flaring light to Kyrgyzstan, Missionary Hosea's mission field. It was a special time of thanks as we dedicated a school building built with Bethel members' offerings. Fifth, with great work of our translation team, we were able to publish English versions of QT for all generations. This is an immigrant church's dream. We distributed not only in the US, but throughout the world. Along with that, we held the 1st SPA Seminar(SPA-Korean acronym for place of pastoral/shepherd training) in US at Bethel. This was an opportunity to actively distribute English QT publications. Sixth, Bethel Classical Academy(BCA), which was opened during pandemic to develop future Christian leaders, celebrated their 1st anniversary. By forming Executive director and its sponsoring board, the school has grown vigorously. Seventh, our church held its first-ever Bethel Mission Conference in Georgia to celebrate church's 46th anniversary. We invited our church's missionaries as well as those we support. We prepared and adopted Bethel Mission Vision Declaration for the next 10 years. Eighth, in addition to Elijah Early Morning Prayer, we added two more special Early Morning Prayers, before Theological Seminars and the lay leader selection. By God's grace our spirituality was heightened with the entire church praying on our knees. Ninth, we experienced autumn warmth of God's grace and thanks as we held Sharing Thanks Talk Concert, a Thanksgiving event, at our church courtyard in chilly autumn weather. It was a blessed time. Tenth, Bethel Grace Church(English congregation), became independent since our church was founded 46 years ago. We will still share the campus and Church school. They have ordained a BGC elder. We give all glory to God.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 7:13-20)

1.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주위에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방황하는 자를 아는 분이 있는지요?

적용하기

2.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15절, 참고/렘 23:16, 28, 요 10:11-12, 행 20:29-30)

1) _____ (참고/ 렘 23:16, 28)

2) _____ (참고/요 10:11-12, 행 20:29-30)

3) _____ (13-14절, 참고/렘 23:16-17, 렘 8:11)

3.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分辨할 수 있을까요? (16-20절)

1) _____ (참고/ 요일 2:26)

2) _____ (참고/ 마 12:33-37)

추수감사절 특집(2)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감사 먼저, 우리 주님 보여요

얼바인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신분 문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살리셔서 결국 영주권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가을,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만, 전국 소망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얼바인에서 둘째 아이의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베델 교회 안에서 세계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태인 성도

건조한 사막 기후인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오던 올해 여름, 처음으로 덥고 질편한 숨 막히는 공기 속에서 갑자기 개체수 증가를 보이는 모기들에게 헌혈하며 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할로윈이 지나면서, 어느 집 문에 장식되었던 마녀의 빗자루에 이 괴롭고 불편한 계절감도 실려 함께 사라진 듯합니다. 요즘은 숨 쉴 때마다 신선한 공기가 코끝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일깨워줍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다가 이맘때쯤 한국으로 이사간 지인이 떠올라 함께 보냈던 시간이 그리움으로 밀려왔습니다.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줬던 그 지인에게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단 걸 못 느꼈었는데 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저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기기 보단 저에게 지금 없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불평으로 세월을 흘려 보냈었기에, 지금처럼 지나고 나서야 아쉬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앞으로는 제 주위의 분들이 모두 저의 현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감사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의 하루하루의 모든 상황과 일들에서 부족한 것보단 저에게 주신 더 많은 것들을 해야리며 살기로 했습니다. 항상 들



어 아는 말이지만, 앞으로 제 삶에 잊지 않고 매일 이 말을 떠올리며 살려 합니다. "If you want to feel rich, just count all things you have that money can't buy.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있게 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휴리 집사

저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베델교회에 출석하면서 매주 설교 말씀과 양육반 훈련을 통해 하루하루 제 자신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작은 소망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 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

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영옥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터치하셨지만, 변화를 멀리하며 15년이란 오랜 시간 교회 주변만 맴돌고 있던 지인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15년이나 맴돌았으면 이제는 들어오셔야지요"라는 제 말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앞으로 이분에게 펼쳐 보이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종선 집사

어찌 감사드리지 않으리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75년 동안 한결같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주신 아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건만, 평생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생 만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날까지 참아주신 아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드립니다.

이창열 장로

코비드 중에 이사 와서 걱정이었는데, 잘 정착하게 해 주시고 좋은 교회와 성숙한 신앙의 친구들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철순 형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다가 8월 7일에 미국으로 온 2학년 최성은입니다. 올해 가장 감사했던 점은 미국에 온 것입니다. 너무 설레어 마음이 막 날뛰었는데, 한국에서 지낸 친구들과 해어지는 건 너무나 아쉬웠지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 친구들이 생기니 한국 친구들과의 이별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잘 인도해 주신 덕분에 친구도 사귄 거잖아요. 저는 그 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미국으로 인



도해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최성은(유년부)

셀사역 - 셀목자 동산

지쳤던 마음 회복의 시간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축복이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귀하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으며 그 대화 안에서 주님의 뜻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었고, 또 처음 대화하는 분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은혜롭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이 우리 벧델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들의 많은 고충과 어려운 시간을 극복한 경험담을 귀담아듣게 해주셨고, 셀목자로서의 고충과 또한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는 참으로 부족한 죄인임을 주께 고백하게 되었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열심히 우리 첫사랑 셀식구를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에 지명되어 함께 그 길을 말씀을 들불 삼아 동행하는 동역자분들이 계심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번 여성 셀목자 동산은 서로를 충분히 격려하며 아낌없이 칭찬하고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찬양, 은혜로운 말씀과 눈물 나는 간증, 그리고 예쁜 장식을 꾸며주신 마음, 너무나 맛난 음식...이 풍성한 자리를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많은 분이 뒤에 있음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미안해집니다. 행사 준비로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손길에 감사합니다. 거제 받은 이 감사한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송미선 집사

이번 여성 셀 동산은 축제였습니다. 테이블 셋팅에서부터 점심 만찬까지 VIP를 대접하듯 귀하게 여성 셀목자들을 섬겨 주심에 감동이 되어 깊은 감사와 함께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셀목자와, 목회자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독 많은 우리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애들을 돌보다가 셀모임을 마친 것 같은 기분이 든 날도 있었는데, 그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셀목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맴돕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셀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과 그러면서도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셀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를 굴리는 셀목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임정연 집사

어느 날 갑자기 공석이 된 셀목자 자리를 떠밀리듯 맡고 나서 '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이제 여섯 가정을 이끄는 징검다리 셀의 목자로 제가 먼저 예배와 교육, 모든 교회 활동과 봉사 자리에 충실하면 모든 셀 식구들이 저를 본받아 잘 따라올 거라 믿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징검다리를 건너듯 온 것이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셀동산! 입구에서부터 정성스레 놓인 화분들과 부목사님들, 봉사자들의 박수와 찬양에 이끌려 시작된 동산은 맛있는 음식들과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의 연속이었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셀식구의 감동 편지는 여태 셀식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늘 미안했던 제 마음을 헌신으로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셀목자로, 든든한 동역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주경아 집사

교육부 - 교사 금식기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육부

지난 10월 베델 교회학교에서는 교육부를 섬기시는 8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한 달간의 금식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는 4가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기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시는 3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끼를 선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육부에서는 하루에 12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고, 한 선생님이 22번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에게는 해당하는 날에 이메일과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서, 말씀과 격려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날그날의 기도 제목도 알려드렸습니다. 전체 9개의 부서에서 30일간의 기



도회를 마치면서는 모두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귀한 기도 모임을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번에 베델 교육부에서 30일 금식기도회를 마치게 되면서, 10월 31일에 열렸던 Fall Fest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놀라웠습니다. 할리윈 날에 교회에서 열렸던 가을 축제의 날, "Gospel Station"(복음 정거장)에서는 오빠 언니들이 어린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에 250명의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날 저녁,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었습니다. 이날 복음에 응답한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족과 나아가 학교와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주님께 말할 수 없는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박성권 목사

금식 기도제목

- 1. 베델교회 학교 교장이신 김한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진, 교회 리더십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께 쓰임 받게 하소서**
- 2. 교육부 사역자, 교사 및 TA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심장으로 사역하며 주님의 영훈들을 섬기게 해 주소서**
- 3.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 더해져 가는 교육부가 되게 하소서**
- 4. 교육부 리더들이 베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할 수 있게 하소서**

바이블 클럽

아름다운 주행

지난 6월 서울에서 알바인으로 이주한 후 본주 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주일, 주보에 실린 바이블클럽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던 것 같아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깊이 알고 싶어서 역사서와 사도행전을 동시에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클럽은 매일 30일 동안 성경을 함께 읽으며 그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기록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쓴 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을 올리는 형식입니다. 카톨릭에서 앞사람이 글을 올리면 릴레이식으로 뒷사람들이 차례로 앞사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 자신의 글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이 그저 어느 책의 이야기일 뿐 저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

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는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저는 이름만 크리스천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클럽을 통해 비로소 말씀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고, 말씀이 각 사람의 처지와 운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늘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 주님과 아

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 가족들은 저같이 말씀 읽기를 소홀히 여기며, 포기하고 외식하던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셔서, 작은 믿음, 작은 순종으로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일상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이 순전한 믿음의 출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유진 성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케이어 및 친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의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경아

수양관: 오윤란

사역광고

기도 굴리기 연합 모임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의 최대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산상수훈 설교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기도를 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델교회 기도 사역팀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가오는 2023년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굴리기로 연합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동역하시는 모든 골방 기도팀, 레위 기도팀, 두드림 온라인 기도팀, 헬시바 기도팀, 치유 기도팀을 비롯하여 기도 굴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 굴리기를 통해 기도의 폭을 넓히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

사역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일시: 11월 30일(수) 오전 수요예배 후

▶ 장소: 비전 채플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21-2906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 |

12/4: ①부-선상균

②부-변준호

③부-이봉윤

④부-이병천

12/11: ①부-윤주원

②부-백영만

③부-김효선

④부-이유빈

12/18: ①부-이국선

②부-안지호

③부-이길수

④부-김정수

헬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월) |

12/3: 이동오

12/10: 이완희

12/17: 이상열

12/24: 이성호

강단꽃(11,12월) |

11/27: 주정숙, 박정화

12/4: 이종선

12/11: 이자영

12/18: 한태성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전상돈(한의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고장(주열매), 호세아(그시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자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포도 현금** 오늘(27일)은 포도현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현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현금하시면 됩니다.

◆ **베델 수요예배** 돌아오는 수요일은 정승락 목사님께서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오전 10시 본당에서 현장예배로 드려지게 되오니 베델성도님들은 꼭 참여하시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셀모임 증강**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는 셀모임이 12월과 1월 두 달간 겨울 방학을 갖습니다. 새해에 더욱 셀모임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와 큐티,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침영상 메시지 700회** 날마다 온 세대 큐티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베델교회 아침영상 메시지가 12월 2일(금) 700회를 맞습니다. 교회의 말씀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 **정기 제직회** 이번주 토요일(12월 3일) 오전 7시 30분 토요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임직자 투표, 2023 예산안)로 모입니다.

◆ **교인총회** 2022년 교인총회(임직자 투표)가 12월 10일(토) 토요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임직 예배/신임 임직자 주행**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될 2023년 신임임직자들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8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강사: 박영배 목사(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목사)
신임 임직자 '주행' 일시/장소: 12월 16일(목)~17일(금), 베델교회

◆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배 후, 봉사자 및 셀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주일메시지 통합** 다음 주일(12/4)부터는 그동안 주일예배 1,2,3부 세 번에 걸쳐 발송된 주일예배 안내가 통합되어 한 번만 발송됩니다. 각 예배시간에 동일하게 접속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새가족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환영회를 갖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0일(토) 오후 5시, 유년부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12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2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흥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Bethel Announcements

◆ **교사 만찬** 한해동안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교사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링크는 각 부서 교역자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1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체육관

◆ **영어 중등부(BYM Jr.) After Thanksgiving Party** 지난 추수감사절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일시/장소: 11월 27일(주일) 2부, 3부 각 부서 예배 후, 각 부서 예배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영어 중등부 겨울 수련회** BYM Jr. High에서 "Flow"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부서에서 발송한 링크를 참조하셔서 오늘(27일)까지 Sign up 해주시기 바라며, 미리 안내된 Google Doc으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12월 27일(화)~29일(목)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영어 고등부 겨울 수련회** BYM에서 "Glory"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간: 12월 27일(화)~29일(목)

신청 방법/마감일 : 온라인 등록 www.bethelyouth.group, 12월 4일(주일)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 **예살 '특새 파이브'** 한해를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살에서도 기도 굽리기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있을 예살 특별 새벽기도회 '특새 파이브'에 많은 청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29일(화)~12월 3일(토), 본당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다가오는 2023 봄학기 개강과 함께 베델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매 학기 늘어가는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문의: 이석희 장로 (949)60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현금 내역서** 2022년도 현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현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축하해 주세요** 오늘(27일) 3부 예배 때 류충환/한보라 성도의 아들 류지민 (Caleb)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원황예 권사님(김은자 권사의 모친, 김권태 장로의 장모)께서 11월 24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길옥실 권사님(길창연 집사의 아내, 강정선 집사의 모친)께서 11월 24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Beware of False Prophets

(Matthew 7:13–20)

1. Even now, false prophets are in a frenzy. Do you know anyone who wandered into a cult or false teaching?

Apply to Life



2. Confirm characteristics of false prophets in the passages. (v.15, Ref:Jer 23:16, 28, Jo 10:11-12, Acts 30:29-30)

1) _____ (Ref: Jer 23:16, 28)

2) _____ (Ref: Jo 10:11-12, Acts 20:29-30)

3) _____ (vv.13-14, Ref: Jer 23:16-17, Jer 8:11)

3. How can we distinguish false prophets? (vv.16-20)

1) _____ (Ref: 1Jo 2:26)

2) _____ (Ref: Matt 12:33-37)